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주택의 욕실계획

하 해 화*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권 오 정 (건국대학교 디자인문화대학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 내부의 물리적인 환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좌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노인, 임산부)과 신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의 욕실에 대한 현 상황과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지, 필요성, 요구도를 조사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가정 내에서 어느 구성원에게도 디자인에 의한 희생이나 불필요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게 하고 가족구성원들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도입된 욕실계획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삼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연구목적에 맞추어 총 9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전체집단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욕실실태 중 출입구에서는 문턱, 문이 열리는 방향, 손잡이 형태, 수납장에서는 높이와 크기, 세면대에서는 세면보울의 크기와 하단의 빈공간, 변기에서는 유효면적의 부족과 지지대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샤워공간에서는 샤워호스의 길이, 욕조에서는 미끄럼방지매트와 욕조용 좌판 등의 부재가 문제로 나타났고 콘센트의 위치와 높이가 부적절했으며 난방과 환풍장치가 과반수이상 설치되지 않았다.

욕실사용실태의 결과를 살펴보면 세수하기와 손씻기는 세면대에서, 발씻기는 욕실바닥에서 세수대야로, 목욕하기는 욕조안에서 샤워기로, 샤워하기와 머리감기는 욕실바닥에서 샤워기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5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이 3.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욕실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세부항목 요구도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세부항목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편리성, 접근성 순이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세부요구항목 중 접근성에서 '변기에 앉은 상태로 손이 닿는 범위내의 휴지걸이'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편리성에 있어서는 '욕조 안·밖에서 손이 닿는 수도 조절기'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로 나타났으며 안전성에 있어서는 '미끄럼방지 재료의 욕실바닥'이 높은 점수로 요구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기초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도입된 3가지 유형의 욕실을 결론으로 제시한다.